

## 러시아연방(Russian Federation)

### 유대인자치주(Еврейская автономная область) -유대인이 떠난 극동의 이스라엘-

<표지 1> 유대인 자치주 비로비잔 역



<표지 2> 비라 강변



<표지 3> 비로비잔 필 하모니 건물



<표지 4> 유대인 이주민 동상



# < 목 차 >

서문

## I. 종합개관

1. 개관
  - 1.1 위치
  - 1.2 일반개황
2. 자연환경
  - 2.1 지리
  - 2.2 기후와 식생
3. 주 상징
  - 3.1 주 기
  - 3.2 주 문장

## II. 상세개관

1. 역사
  - 1.1 형성
  - 1.2 반(反)유대주의
2. 정치
  - 2.1 행정부
  - 2.2 주 의회
  - 2.3 사법부
  - 2.4 대통령 선거(2012년)
3. 경제
  - 3.1 경제 개관
  - 3.2 지역 총생산(GRP)
  - 3.3 주요 산업
  - 3.4 투자현황
4. 사회
  - 4.1 인구 및 민족 구성
  - 4.2 행정구역
  - 4.3 교육
5. 문화
  - 5.1 문화 개관
  - 5.2 종교

5.3 국제유대인문화예술축제

5.4 문화유적과 관광지

6. 한국과의 관계

<참고문헌>

<사진 출처>

<표 출처>

<서문>

유대인 자치주는 공화국, 변경, 주, 연방 시, 자치주 등으로 이루어진 러시아연방 주체들 가운데 하나뿐인 유일한 자치주이다. 하바롭스크 변경과 아무르 주에 둘러싸인 유대인 자치주는 러시아의 극동 지역 한 가운데에 위치한다. 면적은 36,000km<sup>2</sup>로서 러시아 면적의 0.2%에 불과하며, 우리나라와 비교해도 1/3 수준이다.

<서문 1> 유대인 자치주의 자연



그러나 인구도 적고 면적도 작은 유대인 자치주의 역사는 전 세계 유대인의 역사만큼 굴곡져 있다. 유럽에서 반(反)유대주의는 언제나 있어왔다. 러시아 역시 마찬가지다. 그러나 유럽과 달리 러시아는 지속적이고도 강력하게 반유대주의를 표방했다. 16세기 중반 러시아의 통치자였던 이반 4세는 러시아정교로 개종을 거부하는 유대인들을 물에 빠뜨려 죽였다. 18세기 말 폴란드가 러시아에 편입되기 전까지 공식적으로 유대인들은 러시아의 영토에 거주할 수조차 없었다. 이러한 상황은 1917년 혁명을 거치면서 변화하는 듯 했다. 왜냐하면 트로츠키의 경우에서 보듯이 혁명 주도 세력들 중 유대인이 많았기 때문이며, 이전과는 달리 만민이 평등한 세상을 꿈꾸었던 혁명정부는 유대인과 같은 소수민족들도 배려하는 태도를 지녔기 때문이다.

<서문 2> 유대인이었던 러시아 혁명가 레프 트로츠키(1920년)



현실에서 유대인은 무시의 대상이었던 반면 러시아 혁명을 이끌었던 지도부 입장에서 유대인은 관심과 배려의 대상이었다. 이러한 모순적 태도가 유대인 자치주가 만들어지는 배경이 되었다. 일찍이 레닌에 의해서 ‘국가는 아니지만 분리된’ 형태로 유대인 문제를 해결하자는 대안이 마련되었는데 이것이 자치주 형태로 1930년대에 와서야 현실화되었던 것이다. 정책 결정자들은 유대인 자치주를 수립하여 유대인들을 한 곳에 고립시키고 감시를 용이하게 하며 유대인들을 농민화시켜서 러시아인으로의 동화가 이루어지기를 바랐다. 외국인으로만 취급되어 왔던 유대인들 역시 소련 내에서 자치주 성립 등을 비롯한 여러 권리의 확대를 이루었다고는 생각했다.

### <서문 3> 메노라

(메노라는 히브리어로 ‘촛대’를 의미한다. 유대교의 제식에서 쓰이는 7갈래의 촛대다. 이스라엘 문장에는 메노라가 그려져 있으며 비로비잔 역 등 유대인 자치주의 곳곳에서 이 촛대를 상징한 여러 조각이나 건축물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유대인 자치주가 유대인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는데 기여했는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가 많다. 소련의 정책 일관성이 결여되었으며, 유대인과 비로비잔 지역 간의 감정적·역사적·민족적 연관성이 부재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주 정책을 활발하게 펼쳤던 1930년대에는 유대인의 수가 3~4만 가깝기에 이르렀지만 유입된 총 유대인 인원의 거의 60%에 이르는 수가 이주 후에 곧바로 이 지역을 벗어나 근방의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떠났다고 한다. 현재 러시아 연방정부가 추진하는 연방 재구성(통·폐합) 작업의 추세로 볼 때 유대인 자치주는 다른 주와 통합될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서문 4> 유대인자치주 기념우표(2010년)



유대인을 농민화하려는 러시아 정부의 정책이 유대인 자치주의 성립 배경이었다. 이 말은 곧 유대인 자치주가 농업에 적합한 지역이었음을 뜻한다. 소맥, 메밀, 대맥, 사료용 청채(뜻나물), 사료용 옥수수 등이 주요 작물이다. 소와 순록을 중심으로 축산업도 발달하였다. 이러한 농업기반형 경제구조는 유대인 자치주의 경제적 역량이나 역할이 한정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된다. 유대인 자치주의 지역총생산(GRP)은 449억 루블(2015년 기준)이었고, 1인당 지역총생산(GRP)은 268,300 루블(2015년 기준)로 러시아 연방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미비하다. 2000년부터 2008년까지 유대인 자치주가 러시아 연방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0.001%에도 미치지 못했다.

<서문 5> 유대인 자치주 농업



21세기 초반 이후에 유대인 자치주와 한국간의 교류는 거의 없었다. 그러나 2009년 11월 의정부시와 비로비잔 시의 관계자들이 상호교류를 위해 만남을 가지면서 양 지역 간의 상황이 호전되고 있다. 일단 문화·예술 교류로부터 시작하여 신뢰를 쌓은 후 경제협력 문제 등을 논의하기로 하였기에 앞으로는 더욱 호혜적인 관계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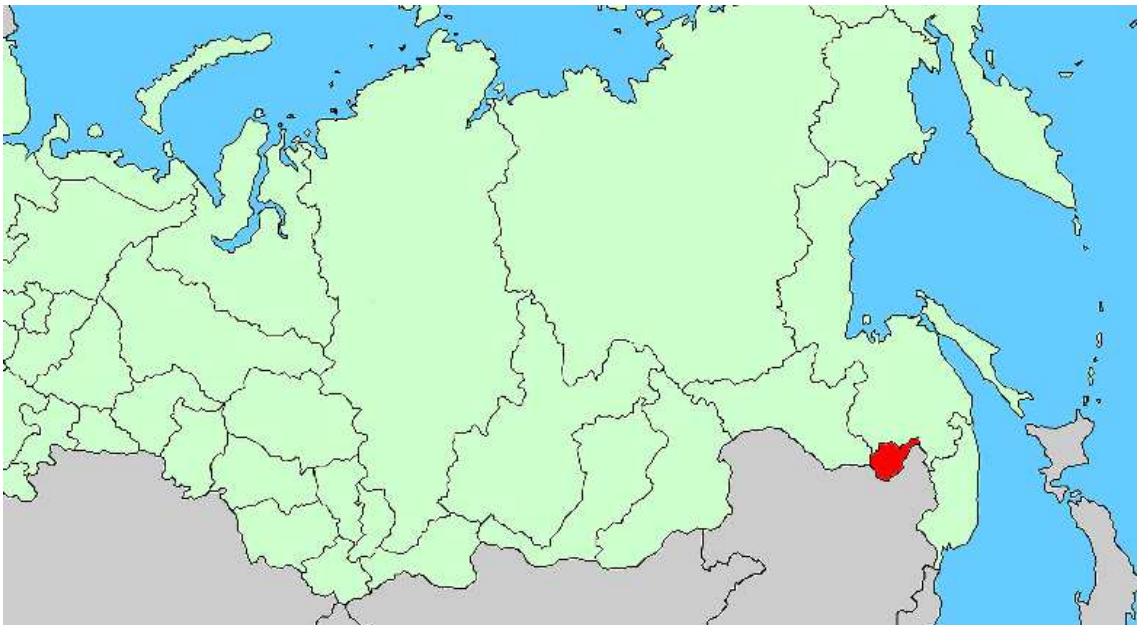
## I. 종합개관

### 1. 개관

#### 1.1 위치

유대인 자치주는 러시아의 극동 지역 가운데 북위 48.29°, 동경 132.08°에 위치하며 하바롭스크 변경과 아무르 주에 둘러싸여 있다. 자치주의 면적은 36,000km<sup>2</sup>이며, 이는 러시아의 총 면적의 0.2%, 한국 면적의 37%에 불과하다.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1934년 자치구가 처음 성립될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모여 살 수 있도록 계획되었다. 이곳의 중심도시인 비로비잔(Биробиджан)은 하바롭스크에서 162km 떨어져 있고, 시베리아 횡단열차가 지나가는 길목에 놓여 있다.

<그림 1> 러시아 연방 내 유대인 자치주



#### 1.2 일반개황

<표 1> 유대인자치주 일반개황

공식명칭	유대인 자치주 (Еврейская автономная область)
주도(州都)	비로비잔(Биробиджан)
면적	36,000km <sup>2</sup> (러시아 전체 면적의 0.2%, 연방주체 중 60위)(한국면적의 37%)
성립일	1934년 5월 7일
기후	대륙성기후, 1월 평균 -24°C, 7월 평균 +20°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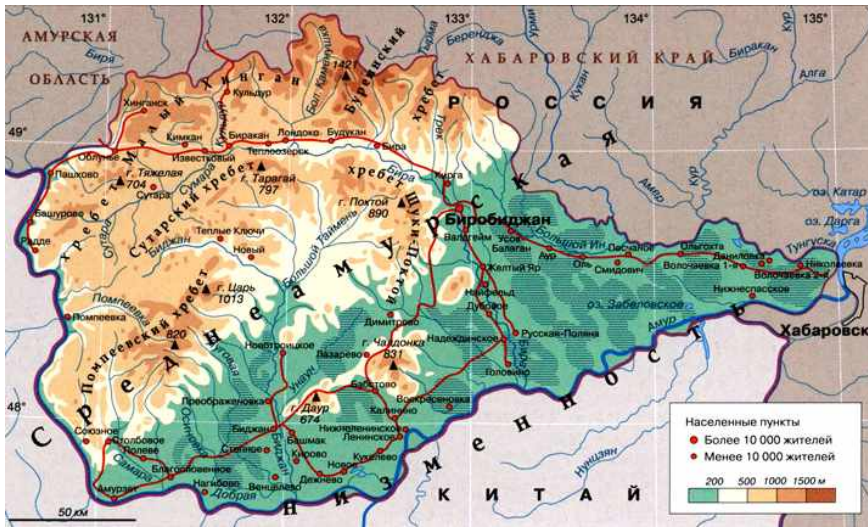
인구	158,831명 (2022년 기준)
민족구성	러시아인(92.7%), 우크라이나인(2.8%), 유대인(1.0%)(2010년 러시아 인구조사)
공용어	러시아어, 이디시어
주지사	로스티슬라프 에른스토비치 골드스타인 (2019년 12월 ~)
소속 연방관구	극동 연방관구
경제지구	극동 경제지구
행정구역 구성	1개의 주도(州都)와 5개 군(郡)
지역총생산 (GRP)	630억 1,440만 루블(2020년 기준)
1인당 지역내총생산(GRP)	400,340.5 루블(2020년 기준)
주요산업	서비스업(68%), 제조업(32%)
주요자원	석탄, 철, 망간, 주석, 금 등 20여종이 넘는 유용 광물자원, 점토, 시멘트, 외장용 돌 등 다양한 건축자재
주요도시	비로비잔, 오블루치예(11,000여명)

## 2. 자연환경

### 2.1 지리

유대인 자치주는 내륙 한가운데 위치하고 있으며, 북서쪽은 산맥, 남동부는 평야, 그 사이를 강이 흐르는 지형이다. 유대인 자치주의 북서쪽에 위치한 산맥은 자치주 전체 면적의 1/3을 차지한다. 이곳의 산들은 높지 않으며 아치처럼 완만한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 중에서 비니 강이 흐르면서 깊이 파놓은 협곡이 있는 북쪽 지역이 유대인 자치주에서 가장 높은 지역이다. 산맥의 주봉(主峯)은 스투덴체스크(Студенческ)(1,421m), 체스부콘다(1,360m), 브디르(1,207m), 차르(1,103m) 등이다. 이 산들은 유대인 자치주의 맨 북쪽에 위치해 있다. 남부 및 남동부 지역에는 중앙아무르 충적평야가 펼쳐져 있다. 평야 지대는 비잔(Биджан) 강의 분지와 아무르 강 기슭 지역,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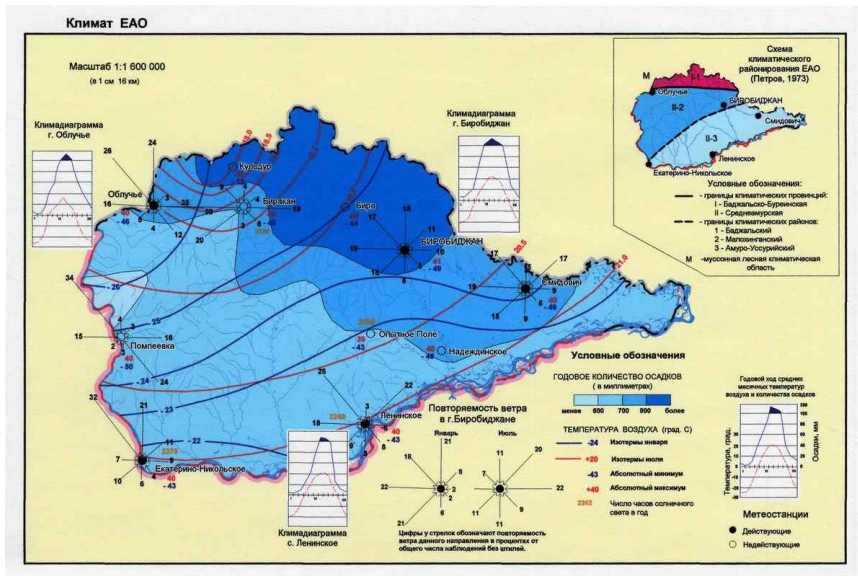
#### <그림 2> 유대인 자치주 지형도



## 2.2 기후와 식생

유대인 자치주의 기후는, 전반적으로 러시아 시베리아 지역의 기후가 그러하듯이, 우리나라와 비교하면 춥다. 그러나 시베리아 지역에서 유대인 자치주 지역의 기후는 몬순의 특징을 가진 대륙성 기후로서 러시아 전반적인 기후에 비해 상대적으로 따뜻하다. 그래서 이 지역은 극동지역에서 가장 양호한 기후를 갖는 곳 중 하나이다. 겨울은 한랭하고 건조한 북서풍이 부나 때때로 북극지방의 대기가 침입하여 춥고 눈이 많지 않다. 여름은 동아시아 몬순의 영향으로 덥고 습하다. 1년 중 7월이 가장 더우며(20°C~40°C), 1월이 가장 춥다(-49°C~-24°C). 겨울은 약 152~165일이다. 9월 20일~10월 7일에 서리가 내리며, 10월 말에는 눈이 쌓인다. 연 강수량의 85%가 여름에 집중되어 있다. 장마철에는 강이 범람하여 홍수가 발생하곤 할 정도로 수량이 많아져 수위가 높아진다. 반면, 초여름은 건조하다. 이곳의 날씨는 비옥하여 숲과 풀이 자라기 좋다. 다시 말해서 농업에 적합하다. 그리고 금, 구리, 납, 아연 등 천연자원이 풍부하다. 기본적인 식생은 아무르 주 또는 남부 하바롭스크 지역과 유사하다. 북쪽 산에는 나무들이 무성하다.

<그림 3> 유대인 자치주 기후지도



<그림 4> 유대인 자치주의 자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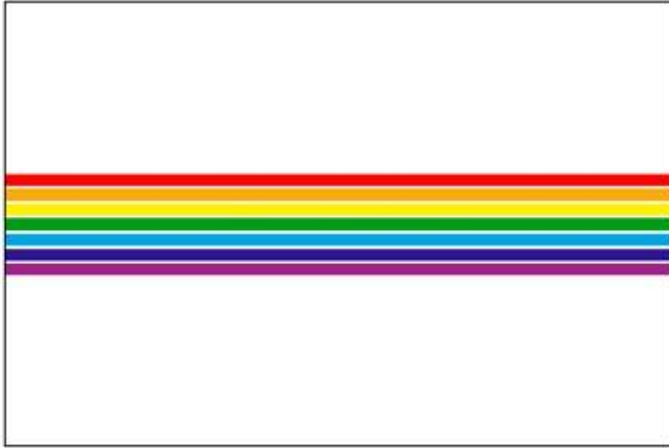
### 3. 주 상징

#### 3.1 주 기

유대인 자치주의 깃발은 하얀색 바탕의 직사각형에 무지개가 수평선으로 그려진 모양새를 하고 있다. 1996년 10월에 채택되었으며, 흰색 바탕은 이스라엘 국기의 흰색에서 가져온 것이고, 7개의 선은 유대 종교 의식에 쓰이는 7가지 촛대 (Jewish

Menorah)를 상징한다. 가로 세로의 비율은 2:3이고, 7개 무지개 색깔 선의 넓이는 각각 깃발 넓이는 1/40이며, 무지개 색깔 선을 나누는 흰색의 넓이는 전체 깃발 넓이의 1/120이다.

<그림 5> 유대인 자치주 기



### 3.2 주 문장

유대인 자치주의 문장은 프랑스 전령관의 녹색 방패 모양이다. 방패의 넓이와 높이의 비율은 8:9이다. 문장의 위아래 부분에 있는 파란색 줄은 문장 높이의 1/50을 차지하며 비라(Бира) 강, 비잔(Биджан) 강을 상징한다. 또한 이스라엘 국기에 등장하는 색깔이기도 하다. 문장의 가운데에는 황금색 우수리 호랑이가 세 발을 딛고 한 발은 내밀고 있는데 마치 전진 중인 것 같은 모습이다. 유대인 자치주의 고유 동물인 호랑이는 관객의 눈으로 보면 오른쪽을 향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 지역의 나아갈 방향을 지시하는 것이다.

<그림 6> 유대인 자치주 문장



## II. 상세개관

### 1. 역사

#### 1.1 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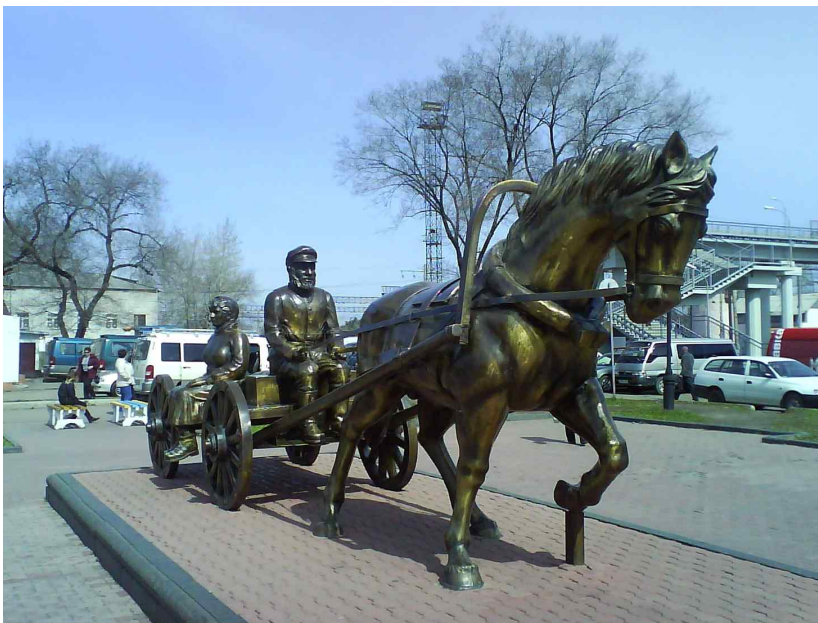
##### 1.1.1 제정 러시아 시대

현재의 프리아무리에(Приамурье, 아무르 강 유역) 지역(아무르 주, 하바롭스크 변경, 유대인 자치주)로 러시아인이 진출하기 시작한 것은 17세기 중반부터이다. 1644년 6월 바실리 포야르코프(Василий Поярков)가 아무르 강을 따라 배를 타고 이동하면서 이 근방의 강 이름들을 지었다고 알려져 있으며, 이후 예로페이 하바로프(Ерофей Хабаров)가 이 지역에서 러시아 제국의 영향력을 강화시켰다. 이 무렵부터 인구가 늘어나기 시작했다. 곧이어 이곳에 카자크인, 자유 산업주의자, 소작농, 분리파 구교도 신자들(Раскольник)들이 정착하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세기까지만 해도 이 지역의 인구는 여전히 적었다.

20세기에 들어와서 러시아가 본격적으로 극동 지역의 경제적 가치를 알게 되면서 인구의 대량 유입이 이루어졌다. 이곳에 유대인이 정착하게 된 과정은 아무르 강 기슭의 정착 역사와 밀접한 관계를 맺는다. 1921년 유대인 정착 위원회(KOMZET)가 설립되어 유대인이 거주할 곳과 이들이 농업에 적응하는 방법을 찾는 역할을 했다. 처음에는 크림반도 지역, 우크라이나, 스타브로폴, 스몰렌스크 및 프스코프 근처 등을 물색하였으나 실패하고 연해 지역의 현재 비로비잔 근처가 알맞다고 결정하였다. 1928년 5월 우크라이나, 벨라루시, 중부 러시아 등에서 유대인들이 치훈카야 역을 통해 들어왔고 역 근처(나중에 비로비잔 시)를 중심으로 정착하기 시작했다. 자치주가 계획되던 초기에는 세계 여러 지역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아르헨티나, 리투아니아, 프랑스, 라트비아, 독일, 폴란드, 팔레스타인)이 소련을 민주주의 국가로 생각하고 이곳에 정착하기 위해 들어왔다. 당시 리투아니아, 벨라루시, 우크라이나 등 유럽 쪽 러

시아 영토에 약 400만 명의 유대인이 거주하고 있었다고 한다. 러시아인은 전통적으로 반유대주의가 강해서 유대인들은 상트페테르부르크나 모스크바 등 대도시로 진출할 수가 없었다. 이후 볼셰비키 혁명에 트로츠키, 스페르돌로프, 지노비예프 등의 유대인 혁명가들이 적극 가담하면서 러시아 사회에서 유대인의 영향력이 커지기 시작했다. 이런 변화에 힘입어 신생 소비에트 정부는 1924년 유대인 자치관구를 만들기로 결정하고 이곳에 학자들을 보내 타당성을 조사했다. 이곳으로의 본격적인 이주는 1928년부터 시작되었다. 멀리 폴란드에서도 왔지만 주로 벨라루시와 우크라이나 출신의 이주민이 많아 10년 새 약 4만 명까지 이르게 되었다. 이 지역의 유대인들은 주로 농사에 전념하였는데 여름 더위와 겨울 추위로 정착에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1928년부터 1933년까지 22만 3천명이 이 지역으로 이주하였다. 1934년 5월 7일 하바롭스크 지역이 형성되면서 비로-비잔스키 민족구는 이 지역에 편입되었고, 유대인 민족주(Автономная Еврейская национальная область)가 공표되었다.

<그림 7> 비로비잔 시의 유대인 이주자들을 위한 동상



### 1.1.2 구소련 시대

1934년 5월 비로비잔 군이 유대인 자치주로 선포되지만 이곳 주민들은 1936년 반유대주의 정책을 편 스탈린 치하에서 혹독한 탄압을 받았다. 비슷한 시기 극동의 한인들이 그랬듯이 정치인, 시인, 작가 등 유대인 지도자들이 대거 연행되어 수감되었다. 유대인 학교와 도서관, 예배당이 폐쇄되었고 이디시어를 쓸 수 없었다. 다른 민족들은 모국어 교육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아이들에게 이디시어를 교육할 수 없었으며, 학교의 설립도 각종 구실을 대어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대조국전쟁(제2차 세계대전) 초기에 이 지역에서 전쟁물품을 생산하기 시작했다. 타이어, 지

뢰, 자동차, 화물차, 무기, 군복 등을 생산했으며, 식품을 만들고 기념품을 제조하기도 했다. 이렇듯 전쟁 기간 동안 7,000명이 죽거나 실종될 정도로 과도하게 추진된 전쟁 물품 산업단지를 기반으로 전쟁이 끝난 후 유대인 자치주에는 주요 산업이 발전하였다. 비로비잔 시에 신발공장과 제과공장, 곡물가공공장 등이 운영되었고 그 밖의 지역에서 시멘트나 주석 관련 공단 등이 터를 잡았다. 1960~1980년대는 경제가 안정적으로 발전하였다. 새로운 기업들이 설립되었고 기존의 기업들은 구조 조정되었다. 곡물 수확 콤바인들, 다양한 공산품, 가구, 양말이 생산되었으며, 생산량이 증대되었다. 신발, 의류, 식료품, 육류, 유류 생산 기업들도 성장했다. 이 기간에 특히 농업에 주요 관심이 집중되었으며 축산업도 발달했다. 또한, 이 지역은 극동지역에서 목재 등의 원자재, 경공업, 농업기계, 전력변환, 농업식품 등의 필요를 충족시켜 주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 유대인 자치주는 하바롭스크 변경의 한 부분이었으나 1991년에 하바롭스크 변경으로부터 독립하여 유대인자치주로 선포되었다. 이로써 러시아연방의 독립된 주체가 되었다.

<그림 8> 유대인자치주 주정부 표지(러시아어와 이디시어로 표기되어 있다)



Рис. 5

### 1.1.3 유대인자치주 존폐 문제

유대인 자치주가 유대인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는데 기여했는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가 많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핵심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대인 자치주가 만들어질 무렵 대부분의 유대인은 러시아의 서부에 있었음에 반해 유대인 자치주는 러시아의 극동지역에 형성되었다. 다시 말해서 유대인 정착지가 너무 외진 곳에 있다는 점이다. 둘째, 소련의 정책 일관성이 결여되었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유대인들만의 독자적인 문화적 특징을 보존하고 정치적 권리를 보장해주겠다는 취지로 유대인 자치주가 만들어졌지만 이에 역행하여 1936~1939

년 유대인 자치주를 포함한 소련 전 지역에 걸쳐 일어난 엄청난 숙청이 일어났다. 모순되는 정책이 짧은 기간 동안 연속해서 실시되었던 셈이다. 셋째, 유대인과 비로비잔 지역 간의 감정적·역사적·민족적 연관성이 부재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당시 구소련 정부는 유대인들의 이주를 부추기기 위해 각종 혜택을 홍보하고 지원을 한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들이 받은 현실적 지원은 전무했으며, 혹독한 자연환경만이 그들을 맞이했을 뿐이었다. 또한 당시 이 지역으로 유입되기 전에 유대인들은 임대, 상업, 자금 대출, 주류(보드카) 판매 등에 종사하고 있었는데 구소련의 정책 결정자들은 이들을 강제로 농민화(agrarianization)하려고 하였다. 정책 결정자들의 입장에서는 금융 및 상업에 종사하는 유대인의 수를 줄이고, 러시아에 동화시키려고 하였으나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농업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았다. 따라서 이주 정책을 활발하게 펼쳤던 1930년대에는 유대인의 수가 3~4만 가가이에 이르렀지만 유입된 총 유대인 인원의 거의 60%에 이르는 수가 이주 후에 곧바로 이 지역을 벗어나 근방의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떠났다고 한다. 즉, 강제적 농민화와 유대인 고립정책은 이들을 유대인 자치주에 농민으로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는 데 성공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유대인 자치주는 하바롭스크 변강으로 통합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1991년 유대인 자치주로 선포된 것은 민족적인 이유 때문이었지만 소련 붕괴 이후 유대인들은 거의 미국이나 이스라엘 등 타 지역으로 이주했기 때문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은 그리 많지 않다. 따라서 이러한 현상은 애초에 유대인 자치주가 만들어진 이유와도 부합하지 않으며 현재 러시아 연방정부가 추진하는 연방 재구성(통·폐합) 작업의 추세로 볼 때 다른 주로 통합될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유대인 자치주가 완전히 없어질 것인지 아니면 하바롭스크 변강의 일부로 통합될 것인지를 명확해질 날이 그리 멀지 않은 것 같다.

## 1.2 반(反)유대주의

### 1.2.1 제정러시아 시대의 반(反)유대주의

유럽지역(영국, 독일, 프랑스 등)에서는 반유대주의가 국가의 편익에 따라 간헐적으로 존재해 왔던 반면, 러시아의 반유대인주의적 성향은 꽤 오래 전부터 그리고 꾸준히 있어 왔다. 특히, ‘이반 뇌제’(1530-1584)로 불리던 이반 4세는 러시아정교로의 개종을 거부하는 유대인들을 수장(水葬)시키기도 했다. 18세기 말 폴란드가 러시아에 편입되기 전까지 공식적으로 유대인들은 러시아의 영토에 거주할 수조차 없었다. 소련이 수립되고 유대인 자치주가 성립될 즈음에도 유대인들은 러시아인이 될 수 없었고 영원한 외국인으로 취급되었으며, 추방 또는 혐오와 탄압의 대상이 되어 왔다.

### 1.2.2 구소련 시대의 반(反)유대주의

1917년 혁명 이전부터 볼셰비키 세력은 유대인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려하

지 않을 수 없었다. 사실 당시 혁명 주도 세력에는 트로츠키를 비롯하여 유대인 혁명 활동가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당시 볼셰비키 당 지도부는 권력획득의 방식이 이전과는 다를 수 있다는 생각에 소수민족들과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유대인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으며, 볼셰비키 세력은 유대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였다. 혁명 시기를 거쳐 소련 시대에 들어와서까지 정부의 지도층은 유대인 문제 해결책을 고심해 왔으나, 이들의 결론은 다소 모순적이었다. 이는 유대인 문제의 존재를 무시하면서도 이를 해결해야 했던 당시 지도층의 고민 때문이었다. 일찍이 레닌에 의해서 ‘국가는 아니지만 분리된(a sect, and not a nation)’ 형태의 유대인 문제에 대한 대안이 마련되었는데 이것은 1930년대에 와서야 현실화되었다. 당시 비로비잔 지역 유대인 자치주는 유대인 문제 해결에 가장 적합한 방안이었다. 정책 결정자들은 유대인 자치주를 수립하여 유대인들을 한 곳에 고립시키고 감시를 용이하게 하며 유대인들을 농민화시켜서 러시아인으로의 동화가 이루어지기를 바랐다. 외국인으로만 취급되어 왔던 유대인이 소련 내에서 자치주 성립 등을 비롯한 여러 권리의 확대를 이루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제한이 많았다. 자유롭게 이동하지도 못하였으며 모국어인 이디시어를 쓰지도 배우지도 못했다. 비슷한 기간 동안 소련 내 다른 민족들(독일인, 리투아니아인, 프랑수아인, 폴란드인 등)의 경우 모국어를 후대에 교육할 수 있는 학교도 설립할 수 있었으나 유대인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정부는 각종 행정적 이유를 대면서 이를 거부했다.

러시아에는 지속적으로 반유대주의적 성향이 자리하고 있었지만 시기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있었다. 스탈린 시대에는 전반적으로 탄압이 심했고 이스라엘 국가가 건립된 1948년 즈음에는 반셈족주의(anti-Semitism)와 반유대주의가 강화되었다. 이는 국가 건립으로 인한 소련 내 유대인들의 열렬한 민족적 반응이 스탈린을 비롯한 정부 지도층을 자극했기 때문이다. 흐루쇼프 시대에는 스탈린 시대의 제약과 탄압이 어느 정도 느슨해지는 듯 했다. 그러나 기본적인 반유대주의 성향 또는 유대인 문제를 부정하는 기조는 계속 유지되었다. 1967년 이스라엘이 친(親)소련 아랍 국가들과 벌인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에 대해 소련 내의 유대인들이 열렬한 반응을 보이자, 소련 내에서 반이스라엘, 반시오니즘(anti-Zionism) 등의 경향이 강화되었다. 그러나 이전처럼 유대인 탄압이 심하지는 않았으며, 1980년대 후반까지 소련의 지도자들은 유대인 문제에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고르바초프 정권에 들어서 유대인들은 더 큰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 유대인들은 점차 소련 지역에서 문화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이스라엘을 포함한 외국에 있는 유대인들과의 접촉이 가능해졌다. 또한, 유대인들의 이민도 가능했다. 고르바초프의 ‘개방 정책’은 유대인들의 국외이주를 촉발시켜서 소련 시대에는 불가능했던 구소련에서 유대인들의 자유로운 탈출이 가능해졌다.

## 2. 정치

### 2.1 행정부

유대인 자치주의 주 행정 주체는 주정부이고, 주를 대표하는 행정 수장은 주지사이다. 주지사의 임기는 4년이다. 현 유대인 자치주 주지사는 로스티슬라프 골트시테인(Ростислав Гольдштейн)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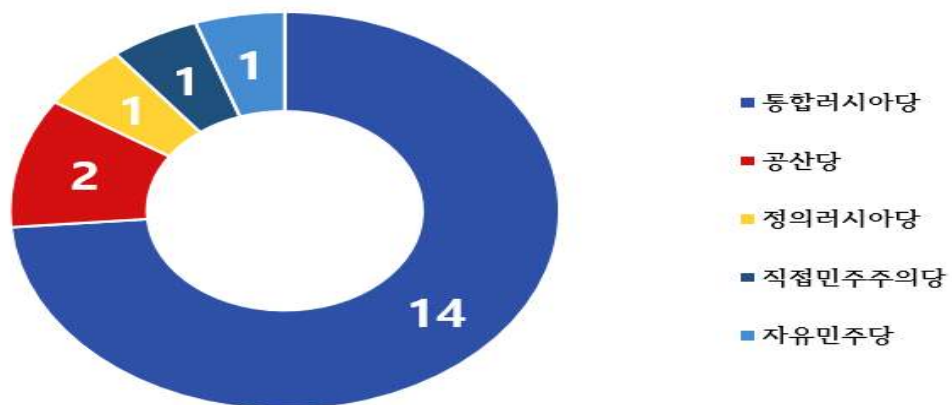
<표 2> 유대인 자치주 역대 주지사

순번	이름	재임기간
제 1대	니콜라이 볼코프 (Николай Волков)	1996년 - 2010년
제 2대	알렉산드르 빈니코프 (Александр Винников)	2010년 - 2015년
제 3대	알렉산드르 레빈탈 (Александр Левинталь)	2015년 - 2019년
제 4대	로스티슬라프 골트시테인 (Ростислав Гольдштейн)	2019년(2020년 9월 까지 대행) 2020년 9월 - 현재

## 2.2 주 의회

유대인 자치주 의회는 5년 임기의 19명의 대의원들로 구성된다. 자치주 의회에는 입법 및 사법 정책 위원회, 사회경제 정책 위원회, 예산 및 세금 위원회, 농업 정책, 환경 관리 및 생태 위원회가 있다. 주요 정당은 통합러시아당(14명), 러시아공산당(2명), 정의러시아당(1명), 자민당(1명) 직접 민주당(1명) 등이며, 지부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현재 유대인 자치주 의회 의장은 로만 스테파노비치 보이코(Роман Степанович Бойко)로 통합러시아당 소속이다.

<그림 9> 유대인 자치주 의회 의석 현황



## 2.3 사법부

유대인 자치주의 사법부는 법원, 중재법원, 군사법원, 치안법원 등으로 구성된다. 비로비잔 시에 위치한 유대인 자치주 법원의 법원장은 두 명으로 이고리 가브리코프(Игорь Гавриков)와 비탈리 스타레츠키(Виталий Старецкий)이다. 부법원장도 두 명인데, 엘레나 피시키나(Елена Пышкина)와 나탈리야 세르가(Наталья Серга)이다. 비로비잔에는 총 5개의 치안법원이 있다.

<그림 10> 비로비잔 시의 법원 건물



## 2.4 대통령 선거(2012&201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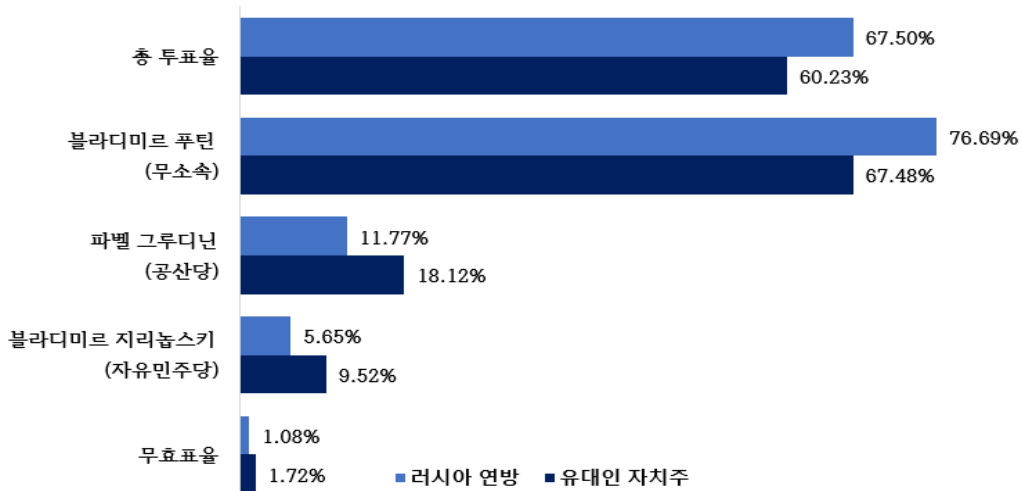
2012년 유대인 자치주에서 실시된 러시아연방 대통령 선거에서 블라디미르 푸틴이 61.59%의 득표율을 올렸다. 이는 러시아 전국 평균 득표율 63.60%에는 못 미치는 수치였다. 유대인 자치주의 각 후보 득표율을 보면 주가노프가 18.63%, 프로호로프가 6.42%, 지리놉스키가 8.35%, 미로노프가 3.48%였다. 유대인 자치주에서는 지리놉스키가 러시아 전국평균 득표율 6.22%보다 훨씬 높은 8.35%를 차지하여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면서 프로호로프를 제치고 3위를 차지하였다.

2018년 유대인 자치주에서 실시된 러시아 연방 대통령 선거에서 블라디미르 푸틴이 67.48%의 득표율을 올렸다. 이는 러시아 전국 평균 득표율 76.69%에는 못 미치는 수치였다. 유대인 자치주의 각 후보 득표율을 보면 파벨 그루디닌이 18.12%(전국 11.77%), 블라디미르 지리놉스키가 9.52%(전국 5.65%)였다. 두 사람 모두 전국 평균 득표율보다 높았다.

<표 3> 2012년 러시아연방 대통령 선거 후보들의 득표율

번호	후 보 자	전국 평균 득표율(%)	유대인 자치주 득표율(%)
1	푸틴(Владимир Путин)	63.60	61,59
2	주가노프(Геннадий Зюганов)	17.18	18,63
3	프로호로프(Михайл Прохоров)	7.98	6,42
4	지리놉스키(Владимир Жириновский )	6.22	8,35
5	미로노프(Сергей Миронов)	3.85	3,48

<그림 11> 2018년 러시아 연방 대통령 선거 후보들의 득표율



### 3. 경제

#### 3.1 경제 개관

유대인 자치주는 극동지역 남부의 아무르 강 유역에 위치한다. 유대인 자치주, 아무르 주, 하바롭스크 변경, 이렇게 3개의 연방주체를 합쳐 프리아무리에라고 부른다. 프리아무리에 지역은 극동의 중심부이며 극동 개발의 거점으로 행정·경제·군사의 중심지이다. 그러나 극동지역의 경제발전은 러시아 혁명 이전의 제정러시아 시대나 혁명 이후의 구소련 시대나 거의 변화가 없었다.

제정러시아는 극동지역을 태평양 방면으로의 군사적 최전선이라고 보았고, 그 후 소비에트연방도 계속해서 이 지역을 태평양에서의 군사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후방 기지로 삼았다. 극동지역에는 풍부한 천연자원이 존재하였으나, 러시아는 1860년대부터 근래에 이르기까지 이 지역에 개발자금을 투입하기 위한 현실적 검토를 고려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극동지역은 모스크바에서 너무나 멀고 인구도 매우 적었기 때문이다. 20세기 초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이 지역에서 농업개혁을 실시하였고, 광대한 농

업용지를 개척해야 할 필요성에 따라서 극동지역을 개발하려는 노력이 일어났다. 이를 계기로 인구가 유입되기 시작하였다.

이 지역의 대외무역액은 러시아의 다른 지역보다 적은 편인데 수출은 나무 또는 종이가 많고, 수입은 자동차, 장비, 운송기기, 의료, 신발, 식료품 등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러시아 관세청 극동세관의 통계에 따르면, 유대인 자치주의 2020년 교역액은 2억 700만 달러(수출은 1억 9,800만 달러이고 수입은 900만 달러)였다. 중국과의 교역이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 3.2 지역총생산(GRP)

유대인 자치주의 지역총생산(GRP)은 630억 1,440만 루블(2020년 기준)이었고, 1인당 지역총생산(GRP)은 400,340.5 루블(2020년 기준)로 러시아 연방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미비하다. 아래 표에서 보듯이 2000년부터 2008년까지 유대인 자치주가 러시아 연방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0.001%에도 미치지 못하였다. 유대인 자치주의 지역총생산량은 극동 지역에서도 그리 큰 비율을 차지하지는 못하고 있다.

<표 4> 러시아 연방 전체, 극동, 유대인 자치주의 지역총생산(GRP) 비교

단위: 백만 루블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2020년
러시아연방	5,753,671.6	18,304,358.2	37,687,768.2	65,750,633.6	93,810,284.5
극동 연방관구)	360,400.6	970,981.7	2,410,988.7	4,033,862.5	6,044,295
유대인 자치주	3,784	14,204.2	31,555.9	44,554.8	63,014.4
비율 (유대인자치주/러시아연방, %)	0.1	0.1	0.1	0.1	0.1
비율 (유대자치주/극동, %)	1.5	1.8	1.5	1.6	1.5

### 3.3 주요 산업

2020년 농산물은 46억 루블에 생산되었으며 그 중 식물 재배는 35억 루블, 가축은 11억 루블입니다. 제조 지수는 47.9 %, 43.5 %, 74.3 %, 농업 기업 각각은 각각 117.9 %, 127.6 %, 96.8 %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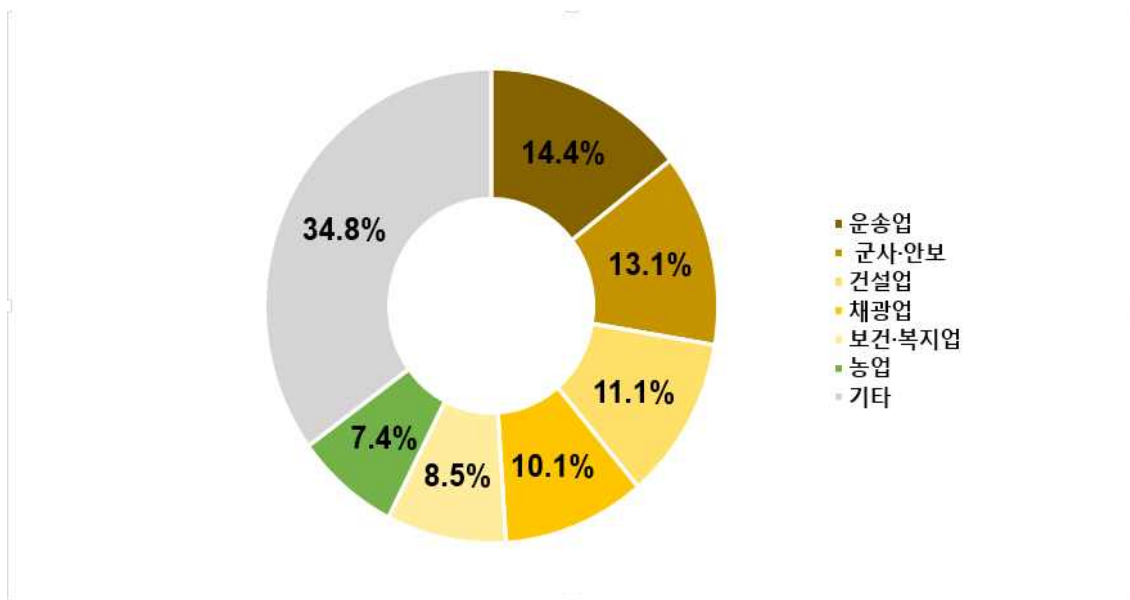
유리한 토양 및 기후 조건, 상당한 성장 기간, 높은 연간 양의 기온 및 따뜻한 계

질의 풍부한 강수량으로 인해 곡물 및 콩류 ( 대두 및 옥수수 포함 ), 야채 와 같은 많은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다. 감자 , 멜론 . 농업 생산 의 중요한 분야 는 육류 와 젖소 사육 , 가금류 사육이다 .

유대인 자치주는 농업이 발달해 있으며 소맥, 메밀, 대맥, 사료용 청채(푼나물), 사료용 옥수수 등이 파종된다. 축산으로 소와 순록이 사육되기도 한다. 이 지역 농업 생산량은 90년대부터 꾸준히 증가하였고 2009년에는 4조 6,790억 루블을 기록했다. 2010년 11월 9일 러시아신문 기사에 의하면 유대인 자치주에서의 콩 수확이 엄청 늘었다고 한다. 자그마치 6만 4천 톤이라고 하는데 이는 유대인 자치주의 평년 수준보다 훨씬 높은 수치이다. 또한 유대인 자치주는 2015년까지 10만 톤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 즉, 이 지역의 더 활발한 농업 발전성과가 기대된다고 할 수 있다.

또 비료비잔 등을 중심으로 기계공업이 발달하였는데 금속절삭기, 단조기계, 변압기, 콤프레서, 기중기, 해양·하천 선박, 에너지 관련기기, 수송기기, 농업기계 등이 대규모로 생산된다. 또한, 이들 지역에서는 제분, 제과, 맥주, 알코올, 음료, 유제품 등이 제조된다. 그리고 GRP 구조를 살펴보면 운송업(14.4%), 군사·안보(13.7%), 건설업(11.08%), 채광업(10.1%), 보건·복지(8.5%), 농업(7.4%), 기타(34.8%) 등으로 차지하고 있다.

<그림 12> 유대인 자치주 경제 구조(2020년)



아래 표는 유대인 자치주 내에서 활동하는 주요기업들의 목록이다. 이 지역의 주요기업들이 활동하는 분야를 알면 주요사업을 파악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아래 표를 살펴보면 삼림 또는 광물 자원을 위주로 운영되는 기업들이 많이 보여 앞서 언급한 바대로 유대인 자치주에서 임업과 광업이 발달했음을 엿볼 수 있다.

<표 5> 유대인 자치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업

기업명	생산물 구분
비로비잔 전기 발전소, 하바롭스크 에네르고 사 지점	열, 전력
김카노-수타르스크 광석 가공 회사	아연-광석 농축물
우슈문스크 카리에르 회사	갈탄
브루사이트 채석 회사	브루사이트, 비광물 건축자재
비로비잔 전력 수송 회사	전력 수송
달셀마시 비로비잔 콤바인 공장/회사	곡물 콤바인, 사료곡물 수확기계, 모층 수송기, 농기계 부품
달수이즈프롬	목재 벌목 및 가공
센헤-레소프로미쉬레노스트 회사	목재 벌목 및 가공
달메벨	가구 제조
가구 공장 포마(FOMA)	사무 가구 제조
비로비잔 가구 공장 (회사)	가구 제조
산스	철제 가구(Metal furniture)
UK-런도고스트로이마테리알 회사	비광석 건축자재, 건축용 석회
테플로제르스크 시멘트	시멘트
보스톡 홀딩	가죽 구두
비로비잔 신발 공장 '로그톡'	가죽 구두
디아만트	스웨터
비로비잔 의류 무역 회사 '빅토리아'	양말, 메리야스, 셔츠

### 3.4 투자현황

유대인 자치주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러시아 연방 전체로 보았을 때 미미한 규모이며 직접투자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2020년 기준 28만 달러에 그치며 이렇게 된 까닭은 러시아의 다른 지역에 비해 유대인 자치주가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제도적인 이유도 무시할 수 없다. 이 지역은 금융업이 발달되어 있지 않았다. 그러나 간접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 따라서 앞으로 이 지역의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직·간접 투자가 필요할 것이며, 행정자치부 차원의 제도 마련 노력이 우선적으로 요구된다. 유대인 자치주는 러시아 경제주간지 「엑스페르트」가 2010년 말에 발표한 2009~2010년도 러시아 83개 연방주체별 투자 잠재력순위와 투자 위험순위에서 각각 81위와 71위를 차지하였다.

#### 4. 사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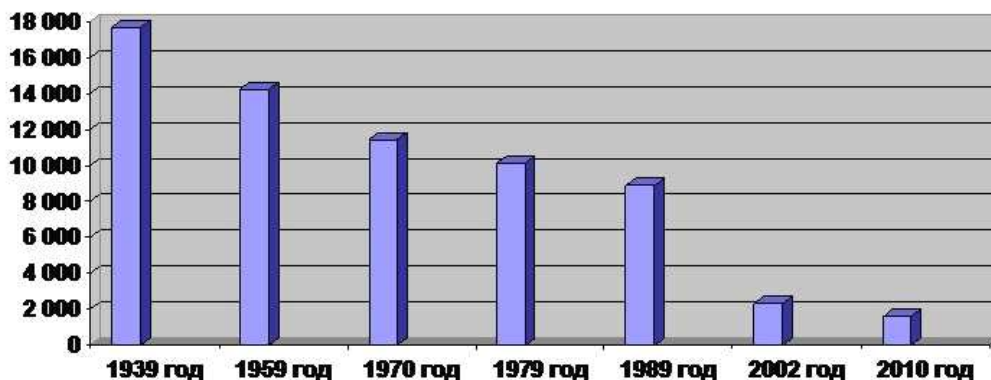
##### 4.1 인구와 민족 구성

유대인 자치주의 인구는 2022년 기준으로 153,831명이다. 2010년 러시아 인구조사에 따르면 유대인 자치주에는 러시아인이 92.7%, 우크라이나인이 2.8%, 유대인 1.0%로 조사되어서, 러시아인의 수가 압도적이다. 아래 표와 그림에서 보듯이 자치주의 설립시기인 1934년 이후 유대인의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현재는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유대인 자치주의 존재 이유에 대해 많은 이들이 의구심을 제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표 6> 유대인 자치주의 민족구성 변화

민족	1939년	1959년	1970년	1979년	1989년	2002년	2010년
러시아인 (명,%)	75,093 (68,9 %)	127,281 (78,2 %)	144,286 (83,7 %)	158,765 (84,1 %)	178,087 (83,2 %)	171,697 (89,9 %)	160,185 (92,7 %)
우크라이나인 (명, %)	9,933 (9,1 %)	14,425 (8,9 %)	10,558 (6,1 %)	11,870 (6,3 %)	15,921 (7,4 %)	8,483 (4,4 %)	4,871 (2,8 %)
유대인 (명, %)	17,695 (16,2 %)	14,269 (8,8 %)	11,452 (6,6 %)	10,163 (5,4 %)	8,887 (4,1 %)	2,327 (1,2 %)	1,628 (1,0 %)

<그림 12> 유대인 자치주의 유대인 수의 변화  
(가로는 년도, 세로는 유대인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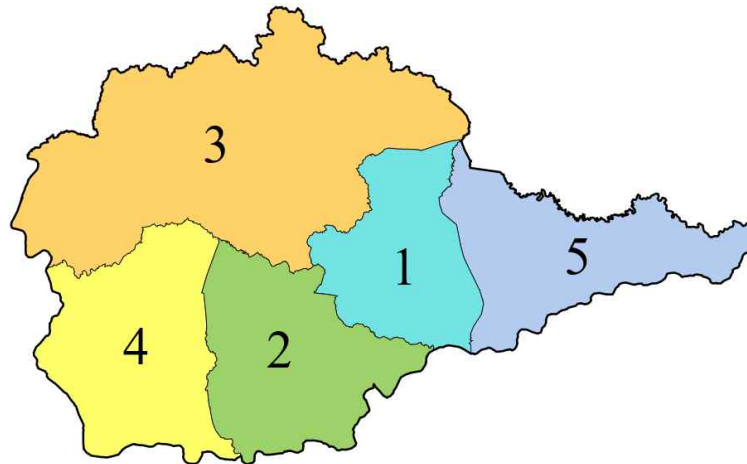


위의 표와 그래프를 보면 2000년 이후로 유대인의 수가 급격히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구소련이 붕괴되고 해외 이주가 자유화되면서 대다수의 유대인이 유대인 자치주를 떠나 이스라엘이나 다른 나라로 이주한 것이 원인이다.

## 4.2 행정구역

유대인 자치주는 러시아연방 83개 연방 주체(21개 공화국, 9개 변경, 46개 주, 2개 연방시, 1개 자치주, 4개 자치관구) 가운데서 유일한 자치주이다. 행정구역은 비로비잔 주도(州都)와 5개의 군(郡)으로 나뉜다. 이 지역을 자치주로 한 이유는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유대인들을 이곳으로 이주시키기 위한 것이었는데 점차 러시아의 행정구역이 통합되거나 철폐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지역이 계속 자치주로 남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러시아연방의 인구 구성에서 유대인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1% 남짓이기 때문에 이 지역은 명목상으로만 유대인의 자치주로 남아있다. 이 지역이 만들어진 원래의 의도가 사실상 무의미해졌기 때문에 이 지역이 아무르 주 또는 하바롭스크 변경으로 통합될 가능성이 커졌다. 그러나 해외 유대인들의 자금력이나 목소리가 상당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즉각적인 철폐를 단정할 수는 없는 만큼 이 문제는 좀 더 두고 봐야 할 것이다.

<그림 13> 유대인 자치주 행정구역



<표 7> 유대인 자치주의 행정구역

번호	지역명	인구(명) (2022년)	행정중심지
군(君)			
1	비로비잔스키(Биробиджанский)	10,782	비로비잔 시
2	레닌스키(Ленинский)	17,533	레닌스코예 마을
3	오블루첸스키(Облученский)	24,122	오블루치예(Облучье) 시
4	옥타브시스키(Октябрьский)	9,207	아무르제트(Амурзет) 마을

5	스미도비츠키(Смидовичский)	23,268	스미도비치(Смидович) 마을
주도(州都)			
	비로비잔(Биробиджан)	68,919	

#### 4.3 교육

유대인 자치주에는 취학 전 아동 교육기관이 64개가 있으며, 일반초등·중등 교육 기관은 66개가 위치해 있다. 고등교육기관으로는 대학교가 1개, 분교가 2개 있다.

<표 8> 유대인 자치주의 고등교육기관(2015년 기준)

학교 명칭	국립/사립	위상	위치
솔롬-알레헴 프리아무르스키국립대학교(Приамурски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университет имени Шолом-Алейхема), 1989년 설립	국립	대학교	비로비잔
아무르국립대학교 비로비잔 분교(Биробиджанский филиал Амур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국립	대학교	비로비잔
하바롭스크 경제와 법률 국립대학교 비로비잔 분교(Биробиджанский филиал Хабаровской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академии экономики и права)	국립	대학교	비로비잔

<그림 14> 솔롬-알레헴 프리아무르스키국립대학교



## 5. 문화

### 5.1 문화 개관

러시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09년 유대인 자치주 인구의 1,000명당 극장 관람객 수는 77명으로 러시아 83개 연방주체 중에서 77위로 하위권에 머물렀다. 반면 박물관 관람객 수는 660명으로 러시아 전체 지역에서 12위를 차지하였다. 이는 정확하지는 않으나 경제적인 문제와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유대인 자치주의 거주자들은 러시아 다른 지역의 주민들보다 문화향유 욕구가 강한 편이어서, 극장, 박물관 관람을 좋아한다. 하지만 극장 관람료가 박물관 관람료보다 상대적으로 비싼 이유로 박물관 이용자 수가 더 많은 것으로 해석된다.

유대인 자치주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문화가 현재 러시아 민족들의 문화와 많은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다. 첫 번째 이유는 현재 인구의 구성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자치주의 대부분을 러시아인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유대교 회당이나 유대교 학교 등의 수도 그리 많지 않다. 스탈린 시대부터 시작된 문화억압정책 때문이다. 당시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을 위한 학교를 세우지 못하였고, 이디시어를 쓸 수도 배울 수도 없었다. 또한 스탈린 시대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하기도 했다. 유대인들에 대한 억압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소련이 붕괴하고 러시아연방 시대가 시작된 때부터이다. 이때를 기점으로 유대인 문화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었다고 보는 것이 맞다.

### 5.2 종교

유대인 자치주의 종교는 러시아 정교, 개신교, 유대교, 이슬람교 등이 공존하고 있다. 2009년 11월 1일 기준으로 39개의 종교 단체가 공식적으로 등록되어 있다. 그러나 거주인들의 대부분이 러시아인인 만큼 대표적인 종교로는 러시아 정교회가 꼽힌다. 아래 그림은 비로비잔에 위치한 러시아 정교 감독관구와 2004년 비로비잔 시에 개원된 유대교 회당이다. 전통적인 회당의 형식이라기보다 현대식으로 건축된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15> 비로비잔 러시아정교 감독관구(Биробиджанская епархия)



<그림 16> 비로비잔의 유대교 회당(Синагога)



### 5.3 국제유대인문화예술축제

유대인 자치주에서는 유대인들의 문화를 명확히 보여주는 ‘유대인 축제’가 열리고 있는데 현재에는 ‘국제유대인문화예술축제’라고 부른다. 이 축제는 1989년부터 시작되었으며 자치주에서 여러모로 지원을 아끼지 않아 성대히 치러지고 있다. 축제에서

는 연극, 전시회, 음악회 등 30여 가지의 행사가 진행되며, 비로비잔에서 약 4일간 계속된다. 현재 유대인 자치주는 유대인 문화 유지 및 발전을 위해 이 축제를 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림 17> 국제 유대인 문화예술 축제의 모습



#### 5.4 문화유적과 관광지

##### 1) 비로비잔 시

비로비잔 시는 하바롭스크에서 170km 북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1930년대 초반 스탈린 박해를 피해 모여든 유대인들이 세운 도시로 ‘잊혀진 이스라엘’이라는 별칭으로도 불린다. 1937년 시로 승격되었으며, 인구는 약 7만 명, 면적은 150km<sup>2</sup>이다. 이스라엘 독립 이후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이주함에 따라 지금은 유대인 거주비율이 2%에 불과하고, 러시아인이 주로 거주하고 있다.

하바롭스크에서 비로비잔으로 가는 길에는 시베리아횡단철도에서 가장 긴 철교가 있다. 길이 3,500m에 이르는 아무르 대철교를 지나면 바로 유대인 자치주로 들어서게 된다.

비로비잔은 아무르 강의 지류인 비잔 강과 비라 강 유역에 발달한 농경지를 배경으로 성장한 농산물 집산지이며, 유대인 자치주의 중심도시이다. 소련정부는 정치적인 의도에서 1928년까지 유대인이 한 사람도 살지 않았던 지역에 자치주 설립을 계획하였다. 1934년에는 자치주가 설립되었고, 1948년에는 유대인 인구가 3만여 명에 달했다. 농업지대를 배경으로 한 식품공업과 농기계제작 및 경공업이 발달하였고, 특히 이 도시의 콤팩트 기계는 극동 전체로 공급되고 있다. 비로비잔 시는 특히 아름다운 자연경관으로 유명하다.

<그림 18> 비로비잔 시



<그림 19> 비로비잔 역(역 이름이 러시아어와 이디시어로 적혀있다).



2) 유대인 자치주 지역학 박물관(Краеведческий музей Еврейской автономной области)

유대인 자치주의 지역학 박물관은 1944년 1월 1일 개관한 유서 깊은 박물관이다. 전시물은 19,200개에 달하며 모든 컬렉션을 포함하면 40,000여 개의 전시물을 보관하고 있다. 부속 건물로는 고문서 보관실과 도서관이 있다. 2000년 전 예루살렘에서 두 번째 유대교 회당이 파괴된 후 처음으로 유대인 행정조직의 교육과 발전에 관한 자료들이 보관되어 있는 것으로 유명하다. 또한 이 박물관에는 유대인 문화 억압 정책, 공산주의 정책에 반대한 유대인들의 투쟁, 현재 유대인들의 이스라엘 귀환 등에

대한 증거 자료들이 다수 보관되어 있다.

<그림 20> 유대인 자치주 지역학 박물관



### 3) 비르비잔 주립 필하모니(Биробиджа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филармония)

비르비잔 주립 필하모니는 유대인 자치주 주민들의 문화생활 중심지이다. 필하모니는 1977년에 개관하였으며 이 건물에서는 콘서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행사가 개최되고 있다. 비르비잔 주립 필하모니는 극동 지역, 러시아 전역, 해외로 순회공연을 자주 펼치면서 역량을 과시하고 있으며 창작의욕이 넘치는 젊은 세대들의 교육에도 힘쓰고 있다. 또한 다양한 음악교육프로그램을 통해서 음악영재들의 교육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그림 21> 비르비잔 주립 필하모니



#### 4) 솔롬-알레이헴 동상

솔롬-알레이헴(Шолом-Алейхем, 1859~1916)의 본명은 솔로몬 나우모비치 라비노비치(Соломон Наумович Рабинович)이다. 필명 솔롬-알레이헴은 ‘세상에 평화를’이란 뜻이다. 그는 유대인 작가로 이디시어와 러시아어로 소설과 희곡, 동화 등을 집필하여 이디시어를 현대적 예술 문학어로 발전시키는데 큰 공헌을 하였다. 솔롬-알레이헴은 ‘유대인 체호프, 유대인 마크 트웨인’으로 불린다. 비로비잔 시에는 그의 이름을 딴 솔롬-알레이헴 프리아무르스키 국립대학교가 있다. 솔롬-알레이헴의 동상은 2004년에 개막되었다.

#### <그림 22> 솔롬-알레이헴의 동상



#### 5) 유대인 종교 공동체 ‘프레이드’ 센터

유대인 종교 공동체 ‘프레이드’는 1997년 7월에 조직되었다. 이 단체가 조직될 당시에 유대인 공동체는 유대인 자치주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의 생활 속에서 중심 역할을 담당하였다. 유대인 공동체는 다양한 직업과 연령의 유대인을 하나로 묶어주며 공동체 의식과 민족의식을 심어주었다. 이런 유대인 종교 공동체 ‘프레이드’가 중심이 되어 2000년 11월에 공동체의 센터가 건립되었는데 건물 안에는 기도실, 도서관, 컴퓨터 교실, 자선 봉사실 등이 있다. 유대인 공동체의 자선활동은 유대인 자치주에서 많은 일을 수행하고 있는데, 자치주 내의 취약계층에게 의약품을 무료로 전달하고 의료 봉사활동을 진행하는 등 여러 가지 실질적 도움을 주고 있다.

<그림 23>유대인 종교 공동체 ‘프레이드’ 센터



6) 바스타크 국립 공원(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природный заповедник ‘Бастак’)

바스타크 국립공원은 1997년 지정되었으며 127,000 헥타르가 넘는 면적을 가진 자연 공원이다. 공원에는 671종의 식물이 분포되어 있으며 35종의 포유류, 265종의 조류, 58종의 어류, 11종의 양서류 등이 서식하고 있다.

<그림 24> 바스타크 국립 공원



## 6. 한국과의 관계

2010년 기준으로 유대인 자치주의 재외국민 수는 선교사 약 10명, 재러시아 한인 수는 약 400명이다. 유대인 자치주와 한국과의 공식적인 교류나 직접적인 관계는 아직까지 미비하지만, 관계가 전혀 없다고 말할 수는 없다. 비록 스탈린의 이민정책 및 유대인 자치주 설립으로 이 지역에서 자리를 잡고 살던 고려인들이 타 지역으로 강제 이주 당하였지만, 구소련이 해체한 이후 다시 이곳으로 돌아온 고려인들은 여전히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기 때문이다.

21세기 초반 이후에 유대인 자치주와 한국간의 교류는 거의 없었다. 그러나 2009년 11월 유대인 자치주와 한국 간 관계의 전환점이 될 만한 사건이 발생한다. 의정부 시와 비로비잔 시의 인사들이 서로의 교류를 위해서 만남을 가진 것이다. 물론, 그동안 양측 간에 관계가 전무하다시피 했기 때문에 서로 만나 논의를 하는 수준에서 머물렀지만 앞으로 두 도시 간 교류가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된다. 지난 회동에서는 일단 문화·예술 교류로부터 시작하여 신뢰를 쌓은 후 경제협력 문제 등을 논의하기로 하였기에 앞으로는 더욱 호혜적인 관계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2010년부터 점차 양측의 교류 또는 협력에 대한 긍정적인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최근 한국과 러시아와의 경제협력과 관련해서, 특히 시베리아 지역에 대한 농업투자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유대인 자치주의 비옥한 토양 및 상대적으로 온화한 기후 덕분에 이곳에 대한 투자 상황을 엿보고 있는 기업들이 눈길을 끈다. 농어촌 진흥공사의 지원으로 (주)지글라스텍이 2010년 5월 해외농업환경조사보고서를 작성했다. 비록 사전 조사가 이루어진 것이긴 하지만 앞으로 이 지역에 대한 농업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한국과의 관계가 강화될 것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긍정적인 계기라고 판단된다. 이 밖에 같은 해 11월 유대인 자치주에 대한 광산개발입찰 정보가 게재된 적이 있다. 이후의 과정에 대해서는 공개되지 않고 있으나 러시아의 지역개발에 대한 관심이 지속되는 한 한국이 유대인 자치주에 대한 투자 정보를 접할 수 있을 것이고, 실질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 자치주와의 교류가 미흡한 이유로 우선, 지역자체가 그리 크지 않고, 앞서 산업구조를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지역의 금융업이 발달하지 못한 점을 들 수 있다. 그렇지만 투자할 만한 대상이 없는 것은 아니므로, 투자 대상에 대해서 한국에도 점차 소개가 된다면 유대인 자치주와 협력 관계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 지역의 금융제도 및 기관이 설립되고 안정되면 이곳에 대한 한국의 투자가 더 늘어나고 양측의 교류도 더 활발해질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극동 시베리아 개황, 외교부, 2011. 4.

대한매일신문, “의정부, 극동 연해주 비로비잔 시 교류 -문화·예술부터 나누자-  
러시아 경제주간지 「엑스페르트」, 2010.12.20-26, No.50

서프라이즈, “유대인 자치주 주도 비로비잔(세계일보)”

폴 존슨 저, 김한성 역, 유대인의 역사 1, 2, 3, 살림, 2005

[http://900igr.net/prezentacija/bez\\_uroka/evrejskaja-avtonomnaja-oblast-132252/](http://900igr.net/prezentacija/bez_uroka/evrejskaja-avtonomnaja-oblast-132252/)

<http://gk170.ru>

<http://www.eao.ru>

<http://www.wikipedia.org/>

<https://ru.wikipedia.org/wiki/>

<https://commons.wikimedia.org>

<http://zseao.ru>

<http://boboboedao.ucoz.ru>

<http://strana.ru/media>

<http://www.customs.ru>

<http://www.dhmail.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08>

<http://www.eao.ru>

<http://www.gks.ru>

<http://www.seoprise.com>

<http://www.zol.com.ru/z-news/showlinks.php?id=62436>

<http://www.slate.com/id/2236079>

<http://zseao.ru>

[https://pravo.ru/arbitr\\_practice/courts/283/](https://pravo.ru/arbitr_practice/courts/283/)

<http://gidnenuzen.ru>

<http://www.gks.ru>

<http://www.dfoportal.info>

<사진 출처>

구분	출처
표지1	<a href="http://cropme.club/openphoto.php?img=https://c2.staticflickr.com/6/5266/5611867537_44ef745c8b_z.jpg">http://cropme.club/openphoto.php?img=https://c2.staticflickr.com/6/5266/5611867537_44ef745c8b_z.jpg</a>
표지2	<a href="https://voinskie-chasti-v-gorodah/birobidjan-i-evreiskaia-avtonomnaia-oblast-perechen-voinskih-chastei/">https://voinskie-chasti-v-gorodah/birobidjan-i-evreiskaia-avtonomnaia-oblast-perechen-voinskih-chastei/</a>
표지3	<a href="http://riabir.ru/lenta/novosti/remont-birobidzhanskoy-oblastnoy-filarmonii-poshel-v-sud.html">http://riabir.ru/lenta/novosti/remont-birobidzhanskoy-oblastnoy-filarmonii-poshel-v-sud.html</a>
표지4	<a href="http://bigbosses.ru/sculpture/70638/">http://bigbosses.ru/sculpture/70638/</a>
서문1	<a href="http://gk170.ru/43/evreiskaa-avtonomnaa-oblast-priroda-770.html">http://gk170.ru/43/evreiskaa-avtonomnaa-oblast-priroda-770.html</a>
서문2	<a href="http://alnaz.ru/almaty/trotskij.html">http://alnaz.ru/almaty/trotskij.html</a>
서문3	<a href="http://putdor.ru/station/birobidzhan.html">http://putdor.ru/station/birobidzhan.html</a>
서문4	<a href="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a/a1/RU055_10.jpg">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a/a1/RU055_10.jpg</a>
서문5	<a href="https://15minut.org/news/125860-80-zemel-evrejskoj-ao-kontroliruyut-kitajtsy-gubernator">https://15minut.org/news/125860-80-zemel-evrejskoj-ao-kontroliruyut-kitajtsy-gubernator</a>
1	<a href="http://bigpictures.club/resize.php?img=http://www.russianlessons.net/russia/jewish/russia-jewish.gif">http://bigpictures.club/resize.php?img=http://www.russianlessons.net/russia/jewish/russia-jewish.gif</a>
2	<a href="http://see.online-editor.ru/gory-hingan-na-karte-rossii">http://see.online-editor.ru/gory-hingan-na-karte-rossii</a>
3	<a href="http://www.eao.ru/files/Images/Nature/climate.jpg">http://www.eao.ru/files/Images/Nature/climate.jpg</a>
4	<a href="http://gk170.ru/43/evreiskaa-avtonomnaa-oblast-priroda-770.html">http://gk170.ru/43/evreiskaa-avtonomnaa-oblast-priroda-770.html</a>
5	<a href="http://school-11eao.ucoz.ru/index/simvolika_eao/0-88">http://school-11eao.ucoz.ru/index/simvolika_eao/0-88</a>
6	<a href="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Coat_of_arms_of_the_Jewish_Autonomous_Oblast.svg?uselang=be-tarask">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Coat_of_arms_of_the_Jewish_Autonomous_Oblast.svg?uselang=be-tarask</a>
7	<a href="http://riabir.ru/lenta/novosti/shkolniki-iz-syol-leninskogo-rayona-pobyivali-na-ekskursii-v-birobidzhane.html">http://riabir.ru/lenta/novosti/shkolniki-iz-syol-leninskogo-rayona-pobyivali-na-ekskursii-v-birobidzhane.html</a>
8	<a href="http://chudinov.ru/wp-content/uploads/2014/02/mstitel5.jpg">http://chudinov.ru/wp-content/uploads/2014/02/mstitel5.jpg</a>
9	<a href="http://www.eao.ru/gubernator/biografiya/">http://www.eao.ru/gubernator/biografiya/</a>
10	<a href="http://zseao.ru/people/pavlova-lyubov-alekseevna/">http://zseao.ru/people/pavlova-lyubov-alekseevna/</a>
11	<a href="http://os.brb.sudrf.ru/modules.php?name=info_court&amp;rid=9">http://os.brb.sudrf.ru/modules.php?name=info_court&amp;rid=9</a>
12	<a href="http://www.dfoportal.info/367526">http://www.dfoportal.info/367526</a>
13	<a href="http://www.dfoportal.info/367526">http://www.dfoportal.info/367526</a>
14	<a href="http://www.wikipedia.org/">http://www.wikipedia.org/</a>
15	<a href="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Jewish_Autonomous_Oblast_s_ciframi_color.svg">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Jewish_Autonomous_Oblast_s_ciframi_color.svg</a>
16	<a href="https://ru.wikipedia.org">https://ru.wikipedia.org</a>
17	<a href="https://ru.wikipedia.org">https://ru.wikipedia.org</a>

18	<a href="http://abmark1974.blogspot.kr/2015/04/blog-post_9.html">http://abmark1974.blogspot.kr/2015/04/blog-post_9.html</a>
19	<a href="http://cyclowiki.org/wiki/%D0%A4%D0%B0%D0%B9%D0%BB:Culture_1.jpg">http://cyclowiki.org/wiki/%D0%A4%D0%B0%D0%B9%D0%BB:Culture_1.jpg</a>
20	<a href="https://kanikuli.ru/places/shalom_birobidzhan#!">https://kanikuli.ru/places/shalom_birobidzhan#!</a>
21	<a href="http://abmark1974.blogspot.kr/2015/04/blog-post_9.html">http://abmark1974.blogspot.kr/2015/04/blog-post_9.html</a>
22	<a href="http://www.pokurortam.ru/0328101055614/">http://www.pokurortam.ru/0328101055614/</a>
23	<a href="http://boboboeko.ucoz.ru/birobidzhan_oblastnaja_filarmonija.jpg">http://boboboeko.ucoz.ru/birobidzhan_oblastnaja_filarmonija.jpg</a>
24	<a href="http://www.grani.lv/daugavpils/24434-evreyskiy-chehov-i-mark-tven.html">http://www.grani.lv/daugavpils/24434-evreyskiy-chehov-i-mark-tven.html</a>
25	<a href="http://gidnenuzen.ru/dostoprimechatel-nosti-rossii/dostoprimechatel-nosti-birobidzhana-i-evrejskoj-ao">http://gidnenuzen.ru/dostoprimechatel-nosti-rossii/dostoprimechatel-nosti-birobidzhana-i-evrejskoj-ao</a>
26	<a href="http://strana.ru/media/images/uploaded/gallery_promo23858704.jpg">http://strana.ru/media/images/uploaded/gallery_promo23858704.jpg</a>

<표 출처>

구분	출처
1	<a href="http://www.wikipedia.org/">http://www.wikipedia.org/</a>
2	<a href="http://zseao.ru">http://zseao.ru</a>
3	<a href="http://zseao.ru">http://zseao.ru</a>
4	<a href="http://www.gks.ru">http://www.gks.ru</a>
5	<a href="http://www.dfoportal.info/367526">http://www.dfoportal.info/367526</a>
6	<a href="http://www.eao.ru/isp-vlast/upravlenie-ekonomiki-pravitelstva/business-v-eao/proizvoditeli-kompozitsionnykh-materialov-v-eao/">http://www.eao.ru/isp-vlast/upravlenie-ekonomiki-pravitelstva/business-v-eao/proizvoditeli-kompozitsionnykh-materialov-v-eao/</a>
7	<a href="http://www.wikipedia.org/">http://www.wikipedia.org/</a>
8	<a href="http://www.wikipedia.org/">http://www.wikipedia.org/</a>
9	<a href="http://www.wikipedia.org/">http://www.wikipedia.org/</a>